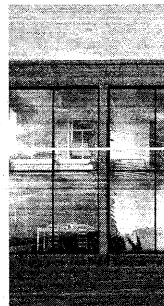


재판에서 매그라이트의 변호사는 바이손 스포츠라이트의 스위치를 누르고 불빛의 각도를 조절했다. 명백히 블랙홀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후에 광학상의 효과를 극복했다는 형제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배심원들은 또 “매글리카의 사업에 손실을 입힌 데 대한 보상과 전구와 스위치, 전기회로에 관한 연구 자료를 훔친 벌로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형제는 법정에서 매글리카의 변호사가 보여준 것에 대해 “어느 누가 그런 각도로 손전등 불빛을 비추겠느냐”며 극단적인 증언에 바탕을 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은 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결함이라도 스포트라이트 아래 나서면 웬만해서는 그냥 드러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법이다.



제6장 완벽한 집을 구할 수는 없을까?

디자인의 결정판, 집

이사를 하려고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나와 내 아내는 엄청난 갈등과 알력을 겪는다. 결정권을 놓고 다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쟁하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은 텍사스 주의 오스틴에서였다. 나름대로 단순한 기준을 세웠지만, 우리가 직면한 제약 조건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좋은 이웃에, 위치도 좋고, 좋은 학교도 많은 좋은 동네에 있는 좋은 집을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가 잡은 예산은 넘기지 않기를 원했다.

우리는 당연히 어느 지점에서든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했다. 그러나 타협을 이루기는 했으되, 애초에 바랐던 것보다 돈은 더 쓰고 말았다. 우리는 만족할 만한 동네에 괜찮은 집을 얻었다.

내 연구실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손볼 데가 더러 있는 집이었고, 우리에게는 수리를 하고 가구를 들여놓고 꾸밀 만한 예산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여하튼 집을 사고 이사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우리는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차를 타고 그 동네를 구경하러 다녔을 때는, 집들이 걸으며 보기에 딱 우리가 상상하던 “살고 싶은 집” 같았다. 부동산 중개인을 동반하고 집을 보러 가서, 집 안도 걸이나 조경만큼 매력적인지 확인했다. 아름답게 균형을 이룬 벽돌집이 마음에 들어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특히 거실과 부부 침실이 멋진 집이었다.

처음에 보았던 집은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곳이었다. 두 번째 본 집도 처음에 보러 갔을 때는 어두워서 잘 몰랐지만,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역시 햇빛이 잘 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재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놀 만한 가족실도 없었고, 부엌은 작고 손볼 데가 많았다. 돌로 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집이 지닌 근사한 통일성을 망치지 않고는 확장이나 개조 공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당시 우리는 그만한 대공사를 감당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은 포기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그 집을 보러 차를 타고 가서, 멀리서 경탄만 하다 왔다.

우리는 우리의 첫 집에서 여기저기 사소한 부분만 조금씩 바꾸면서 몇 년을 더 살았다. 변화라고 해보았자 늘어나는 가족을

위해 침실에 가구를 좀더 들여놓는 정도였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동네에 나오는 매물에 계속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사하는 데 비용을 들이는 것은 당시 우리로서는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집 자체는 꿈에 그리던 것과 거리가 좀 있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위치, 즉 집이 속한 환경만을 보고 집을 구입한 것이었다. 우리는 내심 우리의 부동산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예감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얻어 집을 내놓아야 했을 때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집을 팔 수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카고 교외의 주택 시장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예산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었다. 파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흐름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집을 계약하고 나서도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나갈 때까지 한 달이나 모텔에 머물러야 했다. 집은 나쁘지 않았고 크기도 쓸 만했지만,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충분하게 넓지는 않았다. 아내는 자신의 타자기를 주방 안 식탁을 놓는 곳에 가져다 놓았고, 나는 지하실에 내 책상을 차렸다. 정통을 따르지 않고 되는대로 공간을 활용했지만, 우리는 그런대로 우리의 취향에 맞게 집안 레이아웃을 디자인했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아니었다.

1년도 되기 전에 우리는 그럴듯한 서재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좀더 있는 집,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다시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마당도 좀더 넓은 집이어야 했다. 거기에 우리 차들과 자전거들을 다 넣을 수 있는 차고가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걷고, 또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우리는 “집 팝니다”는 표지판을 눈에 붙을 켜고 찾아다녔다. 우리는 크기도 적당하고 스타일도 마음에 드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꼭 꼼꼼히 살펴보고 두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스틴에 있던 집도 공간배치가 너무나 별났다고 생각했던 만큼, 우리는 사람들이 집을 개조하면서 얼마나 기묘한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목격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집 정면의 방충문을 열면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실이 있는 집을 보았다. 한번은 문이 없는 침실, 즉 다른 침실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침실이 있는 집도 보았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잡은 예산안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나은 집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만 받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살던 집에 그냥 눌러앉았다.

더햄의 주택 시장은 그래도 좀 사정이 나왔다. 그러나 물론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더햄으로 이사를 오면서 나는 회사에서 독립을 해서 개인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이가 더 늘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인 문제

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였다. 우리는 내 사무실이 있는 곳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로 했다. 사무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면 차를 한 대만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두 번이나 집을 사본 경험으로, 우리도 알 만한 건 다 알고 있었다.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완벽한 집을 살 기회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만큼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집을 다니면서 믿게 된 것은, 집을 팔거나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이 사는 집이 완벽한 집이라는 것이다. 한편 어떤 가족에게는 완벽한 집이 다른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 가족이 완벽한 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 매물 중에 딱 맞는 집을 정 찾지 못하겠으면 직접 지으라는 것이 한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었다. 집을 직접 지음으로써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마음에 드는 대지를 구입해서, 집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집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완벽한 집이 된다.

한편 집을 짓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만은 아님을 집을 지어본 어떤 부부의 끔찍한 경험담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붕 색깔부터 주방 찬장까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입주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집 지붕에서 물이 새며 벽에는 곰이 갓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싹 달아났다. 수리할 데가 있어 인부를 불러 함께 일해 보고 나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공포영화 같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확실히 알았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디자인 문제에서처럼, 집을 디자인하는 것도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구속당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하얀 백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위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창문이건, 문이건, 방이건 어디든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 그것들의 크기도 할 수 있는 만큼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과 창문을 스케치하는 것과 그것들을 벽돌과 회반죽벽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이다. 무작정 설치했다가 나중에 보니 열린 방문이 창문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상황이 아닌 바에야, 집을 짓는 데도 제약 조건은 당연히 따르고 매우 좁은 선택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집을 짓는 데는 정말이지 수많은 제약 조건이 따르고 수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비슷한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풍부한 건축가나 건설업자에게 대부분의 선택을 맡긴다. 건축가는 건축주가 그리는 완벽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문적인 손길 또는 컴퓨터의 조력을 받아 설계도안

을 준비할 것이다. 건축가는 방문이 창문을 가리는 일은 없게 주의할 것이다. 식당은 주방 옆에 배치할 것이며, 손님용 화장실은 2층으로 가는 계단 아래 들어가도록 계획한다.

건축가는 구조적으로 도전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토목 엔지니어와 상의를 할 것이다. 커다란 거실에 높다란 둥근 천장을 어떻게 설치할지, 유별나게 큰 발코니를 지탱해 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의한다. 집을 짓는 것도 모두 디자인 결정에 관한 일이므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제약 조건과 타협이 수도 없이 나타날 것이다.

디자인에 관한 제약은 내부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온다. 집에 관한 경우, 대개 시나 주마다 건축 기준에 대한 법규가 있다. 법규는 고도 제한이나 대지 대 건물 면적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디자인에 합리적으로 들어맞을 만한 방들의 수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외부의 제한은 강제적인 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압력도 법만큼이나 강제성을 띤다. 빨간 벽돌집이 늘어선 보수적인 동네에 초현대식 집을 짓는거나 확 튀는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이웃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비칠 수 있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 몰라도, 양식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받기가 십상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것 못지않은 압력을 가한다.

재료의 본성이나 크기도 집을 디자인하고 지을 때 제약이 될 수 있다. 나무가 모자라 이어 붙이느라 생긴 이음매를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도급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특수 제작한 크라운 몰딩이나 판자벽을 주문하게 되면 비용은 자연히 더 들게 된다. 설령 가뭇돈을 쓸 여력이 되고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해도, 가령 아주 긴 방의 몰딩에 필요한 아주 긴 나무나 욕실에 쓸 특대 사이즈의 타일은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그만큼 큰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특수 제작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방법이 되지 못한다. 집을 디자인하고 짓는 데 닥치는 제약 조건의 본성 또는 토목적인 문제나 기계는 타협을 강요한다.

내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때는 더햄의 집에 방을 하나 더 들이는 공사를 할 때였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종류의 일을 한 것이었다. 우리의 모험은 제약 조건과 타협의 본보기였다. 그 집 자체도 우리가 최선으로 선택한 집은 아니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몇 개월 전 사흘간 머물면서 둘러본 몇 집 중 고른 집이 그 집이었다. 우리는 시카고로 되돌아가기 바로 전, 값을 적어 신청서를 냈다. 가능성이 있는 집 리스트에 올려놓은 여남은 개의 집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가격도 맞았고, 공간 배치도 좋았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추 갖추고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방이 하나 더 많았지만, 그 방은 우리 부부의 공동 서재로 쓰면 될 것이었다(당시 내 아내는 아침에 글을 썼고, 나는 밤에 작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

는 서로에게 방해가 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꿈의 집에 완전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최고의 집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시카고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집을 어떻게 꾸미고 가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야기했다.

시카고의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주었다. 줄지에 이사 갈 곳이 없어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선택하기로 했던 두 번째 집에 전화로 값을 넣었다. 그 집도 꽤 좋았지만, 첫 번째 선택한 집과는 매우 달랐다. 처음에는 차 두 대가 들어가는 차고가 있는 집 정도는 갖고 싶었지만, 이제는 차고는 아예 없어도 좋으니 이것저것 손보지 않아도 되는 최신식 집이라면 어디라도 들어가겠다는 심정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가 산 집은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작았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책상 하나 놓을 방 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방을 하나 더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대지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집 경계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집의 서쪽 면에는 방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현관이 있는 북쪽에다 방을 새로 지을 수도 없었다. 길에서 들여다보면 이만저만 모양이 이상해 보일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 쪽을 피해 단다고 해도, 집의 정면 쪽에 방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주방이나 한 침실 앞밖에 없었다. 어느 쪽이든 말이 안 되었다. 주방 앞

에 방을 지으면 주방의 커다란 전망창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 전망창은 햇빛이 충만하게 들어왔을뿐더러 창문 밖에 위치한 나무에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 앉는 풍경도 보여주는 창이었다.

집의 남쪽 면은 집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자리였다. 넓은 테크가 집의 남쪽 면 전부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거실의 남쪽 면은 벽이 없이 모두 창으로만 되어 있어서 나무로 가득 찬 뒷마당을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었고, 겨울이면 그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볕이 들어와 단열이 잘되지 않는 집 안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남쪽에는 우리 부부의 침실이 있었고, 그 방의 커다랗고 유일한 창문은 뒷마당을 향해 있었다. 증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집의 동쪽 면밖에 없었다.

집의 동쪽 면 옆으로는 길이 나 있기는 했지만, 거리가 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길가의 위치한 전봇대나 상수도 등의 공공설비 때문에 방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3미터를 넘을 수 없었다. 우리는 또 동쪽에 있는 창문들을 없애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문을 뚫을 공간은 90센티미터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 공간을 우리 미래의 서재에 출입구를 뚫을 자리로 결정했다. 방은 좁고 긴 모양에 본채보다 뒷마당 쪽으로 뻗게 될 것이며, 동시에 길가 쪽에 위치한 테크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완성된 방은 가로 세로 3미터, 6미터가 될 것이었고, 동쪽 벽 전체에는 책장과 캐비닛을 세우기로 했다. 다락방도 없고 지하

실도 변변치 않은 집에서 이렇게 하면 수납 공간을 꽤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남쪽으로는 커다란 창문을 내기로 했고, 서쪽에는 여닫이 유리문을 달아 테크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의 디자인에 자못 뿌듯해했고, 건설업자에게 청사진으로 제시하기 위해 우리의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건설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입찰을 붙여본 후에야, 우리는 우리가 단지 방 하나 증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제약과 선택에 타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어떤 업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업자는 쉽다고 말하고, 어떤 업자가 쉽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업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성당 천장같이 생긴 우리집 거실 천장은 지붕 바로 아래 있다 보니 경사가 져 있었다. 우리는 지붕의 경사가 그대로 새로 증축하는 방까지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래야 밖에서 보기에 한결같은 모습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업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새로 만드는 방의 동쪽 벽의 높이가 결국 1미터 80센티미터로까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일로서 책장을 넣을 공간이 작아질 뿐 아니라 법정 천장 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래도 밀고 나가고 싶다면 60센티미터가량 바닥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다. 서재에 들어갈 때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 뜻이었고, 테크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집 안과 데크 쪽으로 계단을 놓으면 방이 좁아질 것이었다.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넓게 할 수 있을지 머리를 짜내 만든 구조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사진 천장을 포기한다는 데 합의했다. 납작한 천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집 외양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증축을 계획하면서 세웠던 아이디어에서 전면적으로 물러서고 포기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1981년에 방 하나의 증축 공사를 맡겠다고 네 명의 입찰자가 썩넨 가격은 1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였다.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적은 업자는 아니나 다를까 천장에 경사를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일을 맡는다면,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을 경사지게 하려면 땅을 파서 바닥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아니면 그냥 평평한 천장으로 가야 함을 알아챌 것이 뻔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적어낸 입찰가이므로, 깨닫고 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 역시 분명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예산에 가장 가까운 입찰가를 적어서 낸 업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서 낸 그 업자는 아니었다. 우리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네 명의 업자 중 함께 일하기에 가장 편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가 바로 일에 들어가서 10주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곧바로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건성건성은 아니었다. 오히려 꽤나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었다. 처음에 할 일은 물론 방 들레에 해자를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 기초를 쌓는 일이었다. 그리고 벽의 골조를 세웠다. 그 일을 맡은 벽공은 손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가 일을 끝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방의 모양이 어떠할지 그 면모가 드러났다. 예상대로 방이 너무 좁고 길어 보이는 것에 또다시 염려가 들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방이 완성됐을 때 스스로를 기다란 책상을 옮겨놓으면 모양이 괜찮아지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기초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마루 시공을 위한 들보를 깔 차례였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면 거실 쪽 벽으로 문을 내야 했다. 그래야 새로운 바닥과 원래 집 안 바닥을 같은 높이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사의 여러 과정 중에서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속이 쓰린 부분이었던 것 같다. 이 작업을 마침으로써 원래의 집이 균형이 깨졌으며,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부가 커다랗고 시끄러운 전기톱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벽을 잘라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부의 전기톱에 내장 건식벽, 프레임, 외장 사이프러스나무 판자 벽이 아스리지면서 집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쏟아놓은 벽을 보고 우리는 지난 겨울에 짐작만 하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벽에는 단열재라고는 전혀 없었다).

일꾼이 문 가장자리의 거친 부분을 다듬으면서 말했다. “요

좁은 벽을 이렇게 안 만들지요.” 처음에 우리는 그가 단열재가 없는 것을 두고 한 말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는 줄자를 집어 들더니 헐어낸 벽을 재 보였다. 우리 집은 1950년대에 지어진 집으로 당시에는 벽을 두텁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벽의 재료로 나오는 목재가 예전보다 훨씬 얇다. 일꾼이 이제는 멸종된 종류의 목재를 잘라 나가는 것을 보니 우리의 슬픔은 두 배가 되는 듯했다. 이제 벽 안에서 화석으로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도려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업은 계속되어야 했다.

입찰자를 모집했을 때 온 안목 있는 업자들을 데리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집 마룻바닥의 아래쪽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새방의 마룻장도 원래 집과 같은 기초로 깔고, 그 위에 나무 마루를 깔고 싶었던 것이다. 업자들은 우리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별 말 없이 각자 기록만 했다. 그리고 나서 업자를 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베니어판이 마룻장으로 깔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업자는 오히려 요즘 그렇게 두꺼운 마룻장을 깔 만한 목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했다. 일을 맡게 된 업자는 1950년대 지어진 우리집 마룻장에 쓰인 것과 똑같은 목재는 이제 생산조차 안 되며, 특수 주문을 하자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더 든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베니어판도 좋지만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우리는 계약 위반이라도 당한 느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

나 업자는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기색이 아니었다. 베니어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가 말하기를 나무 바닥을 깔면 누가 보아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의했다. 우리가 동의했다고 생각한 계약 내용의 구체적인 면과 실제로 진행되는 일 중의 많은 차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창문은 몇 개를 달고 싶고, 책장은 몇 개를 놓고 싶은지에 대해 벌였던 그 모든 토론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풀어야 할 것임이 자명해졌다. 우리가 고려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바깥벽에 있던 수도꼭지의 처리 문제였다. 새로운 방이 생기면 없게 될 것이었다. 또 하나는 난방과 냉방 장치 문제였다. 우리의 업자도 이런 문제를 겪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어찌면 새 구조물 밑에 수도를 묻어버렸다가 봄이 돌아왔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는 호스를 들고 집주인이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고역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쪽 벽이나 서쪽 벽에 새로 수도꼭지를 달고 싶은지 물어왔다. 하지만 그는 배관 장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았다. 그는 보일러실에서 원래 집의 벽을 통해 어찌어찌 수도관을 뽑아냈다. 다른 많은 세부 사항과 함께 바닥의 통풍구도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통풍구는 책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딱 하니 나 있었다. 책장은 목수에게 부탁

해 따로 짜고 있는 중이었다.

바닥이 자리 잡자 벽을 세우는 공사는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 보니 일이 벌써 끝나 있었던 것이다. 집에 와보니 아직 지붕은 없었지만 어엿하게 뼈대를 갖춘 내 서재가 보였다. 우리는 점점 형태를 갖추어가는 방의 모양새에 흡족했고, 업자와의 갈등은 잠시 잊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다음날 지붕을 올리기로 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해온 것 중 아마 가장 까다로운 작업일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중요하다. 기존의 지붕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지붕을 그 자리에 단단하게 끼워 넣어야 하고, 두 지붕 사이가 부드럽게, 그리고 새 방에 물이 새지 않게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업자는 주말까지 날씨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일꾼들이 지붕틀을 짜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일한 그들은 땅거미가 지자 떠났다. 거실 동쪽 가장자리 천장은 뚫려 있었다. 날씨가 포근했고, 주말에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업자는 먼지나 다람쥐, 새나 벌레가 들어오는 것이나 막자고 비닐로만 그곳을 덮어놓았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토요일 오후에 변덕스러운 폭풍우가 몰려왔다. 꽤 많은 비가 거실 벽을 타고 흘러내려 카펫을 적셨다. 우리가 전화를 걸자 업자가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손을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할 뿐이었다. 그는 그 손상된 부분을 몇 주 말리고 나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말해 보았자 무엇하겠는가만 우리는 화가 나고 실망했다. 그

러나 일은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고 계속 진행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되도록 빨리 지붕을 완성하고 벽이 완성되기만을 바랐을 뿐 업자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에 일꾼들이 돌아와서 지붕을 완성했고, 토요일 오후에는 벽 작업도 마무리했다. 내부 마감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됐고, 이제는 페인트를 칠할 차례였다. 새 방과 거실 사이에 문을 달았고, 비로소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일이 제 모양을 갖추어가는 듯 보였다. 심지어 두어 주 전 엄청나게 물을 먹은 거실 벽도 새로 페인트를 칠해서, 언제 해를 당했냐는 듯 말끔한 모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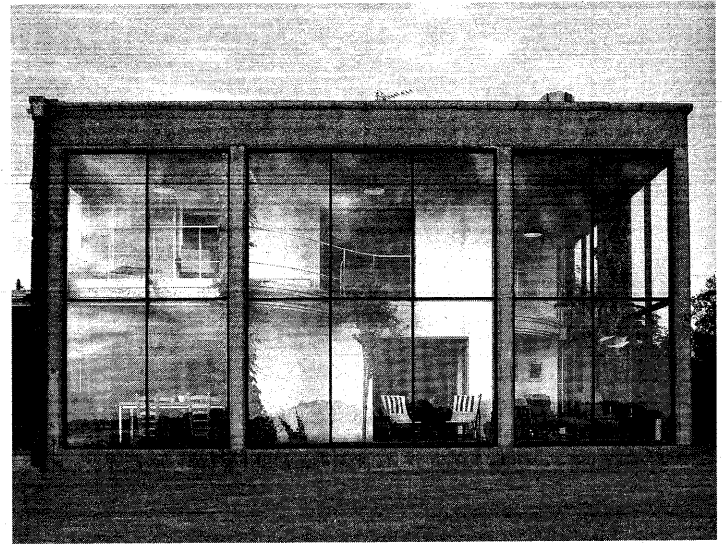
일꾼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 중 하나는 해자를 도로 메우는 것이었다. 해자는 콘크리트 벽돌로 메우고, 그 위에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은 벽돌을 붙였다. 본채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방 바깥 주위를 돌면서 우리는 마지막 꼬투리를 찾아냈다. 뒷마당 쪽은 경사가 져 있는데, 그쪽으로 벽돌을 붙이지 않은 콘크리트 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우리집 안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눈에 잘 띄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업자에게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러놓고도 그 앞에 관목 같은 것을 좀 심어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우리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그 흉한 콘크리트 벽돌을 떼어내고, 아직 남아 있던 벽돌로 그 부분을 메웠다. 기워 붙인 벽돌은 눈으로 알아

첼 수 있을 만큼 불룩 튀어나와서 흉하게 결점으로 남았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떠나면, 마침내 전기톱과 망치, 정 소리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새 서재를 즐길 수 있을 것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관청의 건축물 검사관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전기 배선을 문제 삼았다. 책장을 짜 넣는 것과 지붕을 이는 것을 다 마치고 난 지금에 와서 다시 방의 일부분을 뜯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전기 공사를 새로 하자면 새 지붕에 구멍을 뚫어야 했다. 우리는 정말로 내키지 않았지만, 감독관은 물려서 지 않았다. 전기 공사를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전 전기 배관의 철거와 지붕에 구멍을 뚫는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지붕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물이 새지 않았다. 지붕에 흠이 나는 것을 걱정했던 우리였지만, 전기가 어느 곳에서 들어오는지도 어느새 잊고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추가 공간을 매우 애용하며 즐겼다. 그러나 건설업자와 함께 작업한 경험은 앞으로는 결코 집을 짓지 않겠다는 우리 부부의 다짐을 재차 확고히 해주었다. 우리는 다음번 이사에서는 전 주인이 전부 새롭게 수리한 집을 샀다. 우리는 하늘로 뛰어오를 만큼 기뻐다. 어떤 것도 손볼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어떤 일꾼과도 만날 일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만나서 겪는 일은 이제 불을 보듯 흰하게 께고 있는 우리였다. 그 집에서 우리는 한동안은 나쁠 것이 없었다.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보다 절대적인 것은 예산이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도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자신이 살게 될 집의 모습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그 선택의 기준에 절대적인 것은 예산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디자인 감각이다.

그러나 다 자란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고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나니, 집 안의 구조나 집이 자리 잡은 위치나 모두 예전만큼 우리의 필요에 썩 부응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한 완벽한 집이 없을지 살피며 길을 나설 때마다 집들을 두리번거린다.

우리는 아직도 찾고 있다. 우리를 위한 완벽한 집을.